中國語文學 第100輯(2025. 12) 315-338쪽

영화 〈중국기장(The Captain)〉(2019)과 재난의 정치학

이 보 람*

<目 次>

Ⅰ. 서론
Ⅱ. 예측 가능한 재난의 형상화
1. 예고된 위험
2. 훈련된 책임
Ⅲ. '안전'의 재구성
1.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시스템의 작동
2. 책임지는 주체와 '세 가지 경외(三個敬畏)'
3. 2019년, '안전'의 요청
Ⅳ. 결론: 통제되는 재난, 설계된 신뢰

Ⅰ. 서론

2019년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개봉한 〈중국기장(中國機長, The Captain)〉은 2018년 쓰촨항공 3U8633편의 비상착륙 사건을 재현한 항공 재난영화이다. 비행 중 조종실 윈드실드가 파손되는 돌발 상황 속에서, 기장 류촨젠(劉傳健)과 승무원들이 119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귀환시킨 실제 사건에 기반한 작품이다.[1] 이 작품은 국가 영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세심한 검토와 유익한 조언을 통해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1) '류촨젠(劉傳健)'은 2018년 쓰촨항공 3U8633편 비상착륙 사건의 실제 기장이며, 영화 〈중국기장〉에 등장하는 '류창젠(劉長健)'은 이 실존 인물을 모델로 재구성된 극중 인물이다.

www.kci.go.kr

화 우수작품 지원기금(電影精品專項資金)의 지원을 받았고, 제18회 중국영화 화표상(華表獎)에서 우수영화상을 수상했다.[2] 화표상은 중국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국가급 시상식으로, 국가의 영화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작 환경과 수상 경력은 이 영화가 상업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국가적 기획 속에서 제작된 헌정영화(獻禮片)의 성격이 강함을 보여준다.

영화는 항공 재난 블록버스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연출의 초점은 재난의 스펙터클이나 승객들이 느끼는 공포를 전시하는 데 있지 않다. 위기가 발생할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실행하는지를 중심으로, 기장·승무원·관제사의 대응 과정을 따라간다. 난기류 대응, 윈드실드 파손, 급하강, 통신 두절, 적란운 진입 등 위기 순간들은 파국의 연쇄라기보다, 사고가 '관리 가능한 위기'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들로 배열된다.

따라서 〈중국기장〉은 장르적 외피와 달리, 재난을 통해 국가의 운영 능력·통제력·안정성이 영화적 형식 속에서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기는 파괴의 순간이 아니라 국가 제도가 위기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하며, 영화의 중심에는 개인 영웅성보다 규율, 전문성, 조직적 협업이 놓인다.

중국 학계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에서 〈중국기장〉을 해석해 왔다. 첫째, 산업적·기술적 완성도에 주목하는 연구이다.[3] 실제 기종 복원, 대형

2) '중국영화화표상(中國電影華表獎)'은 1957년 문화부가 제정한 '우수영화상(優秀影片獎)'에서 비롯되었으며, 1995년 현재의 명칭으로 확정된 국가급 영화상이다. 2년마다 개최되며 "인민을 위한 봉사, 사회주의를 위한 봉사(爲人民服務、爲社會主義服務)"라는 창작 원칙에 따른다. 예술적 완성도와 산업적 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선율(主旋律)'의 가치를 구현한 작품을 표창한다.(〈華表獎歷史沿革〉, ≪中國電影局官網≫, 2019年9月5日., https://www.chinafilm.gov.cn/xwzx/ztzl/zgdyhbj/201909/t20190905_1316.html[검색일: 2025.09.16.])

3) 관련 연구에는 다음이 있다. 陳旭光·張明浩, 〈電影工業美學視域下的≪中國機長≫：災難片的本土化與"新主流"的新拓展〉, ≪電影評介≫ 第1期, 2020, 29-33쪽.; 潘國輝·張明浩, 〈電影工業美學視域下的作品呈現——以≪中國機長≫爲例〉, ≪齊魯藝苑≫ 第2期, 2021, 95-101쪽.

www.kci.go.kr

세트 촬영, 특수효과, 음향 시스템, 배우 훈련 등 제작 과정의 정밀함을 신주류(新主流) 영화의 산업적 성취로 평가한다. 천쉬광과 장밍하오(陳旭光·張明浩, 2020)는 〈중국기장〉을 재난영화의 성공적인 본토화 사례로 평가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 속에서 기술력과 조직력이 결합하여 탄생한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평가한다.

둘째, 전문직 종사자의 책임 수행과 협업에 주목하고, 영화가 그리는 영웅 형상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최근 중국영화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평범한 인물의 영웅화', 즉 일상적 직무 수행을 국가적 윤리로 확장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영화가 초인적 개인의 활약보다 기장·승무원·관제사의 협업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적 영웅성에 주목한다고 본다.[4] 리충루이(李從睿, 2022)와 펑위웨(彭雨玥, 2023)는 영화의 집단적 영웅 서사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구체화한다고 보며, 전문성·규율·책임이 개인의 미덕을 넘어 제도적 윤리로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재난 서사와 국가 이념의 결합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이다.[5] 위안원타이(原文泰, 2020)는 영화가 재난의 비극성을 부각하기보다, 체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한다. 장신잉과 리신웨이(張新英·李欣蔚, 2021), 자오옌쥔(趙豔君, 2021)은 비행 전 점검, 공군·관

4) 이와 관련한 연구에는 다음이 있다. 蔡東亮, 〈≪中國機長≫ : 新主流電影話語下的災難片演繹〉, ≪中國電影市場≫ 第11期, 2019, 50-54쪽.; 張凡·宋園園, 〈硬漢精神與英雄敘事——電影≪中國機長≫的主題意蘊及啓示〉, ≪藝術評論≫ 第11期, 2019, 164-170쪽.; 任夢琪·萬益傑, 〈≪中國機長≫ : 戲劇化的英雄敘事〉, ≪西部廣播電視≫ 第17期, 2021, 122-124쪽.; 李從睿, 〈≪中國機長≫ : 社會核心價值觀與文化母題的現代書寫〉, ≪西部廣播電視≫ 第1期, 2022, 97-99쪽.; 彭雨玥, 〈探析新主流電影的敘事策略及價值內涵——以電影≪中國機長≫≪中國醫生≫爲例〉, ≪戲劇之家≫ 第7期, 2023, 150-152쪽.

5) 관련 연구에는 다음이 있다. 範倍, 〈≪中國機長≫ : 實況再現與險情體驗〉, ≪電影藝術≫ 第6期, 2019, 48-50쪽.; 張新英·李欣蔚, 〈當災難遭遇≪中國機長≫——"在災難的注視中"之三〉, ≪博覽羣書≫ 第11期, 2021, 15-18쪽.; 趙豔君, 〈電影≪中國機長≫的時代內涵〉, ≪文化學刊≫ 第2期, 2021, 144-146쪽.; 原文泰, 〈災難敘事與主旋律電影——從 〈中國機長〉 談起〉, ≪中國當代文學研究≫ 第3期, 2020, 206-211쪽.

www.kci.go.kr

제·의료·소방 부문의 협력 장면을 중심으로 영화가 중국 민항의 체계적 질서와 국가적 조율 능력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고 해석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관점의 차이가 있음에도 〈중국기장〉을 국가 서사와 블록버스터 장르가 결합한 성공 사례로 본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분석의 중심은 기술적 완성도, 영웅 형상의 구축을 통해 국가의 질서와 신뢰가 어떻게 시청각적으로 재현되는지 밝히는 데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은 이 영화가 기존 주선율 영화가 강조해 온 개인 영웅의 전형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범·절차·조직적 협업을 중심으로 서사의 초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주선율 담론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해명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선행연구는 모두 〈중국기장〉을 국가 서사의 수행 공간으로 읽지만, 분석의 관점은 서로 다르다. 현재까지 발표된 두 편의 논문 중 한 편은 이 작품을 신시대 중국이 강조하는 감정 정치의 한 양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한다. 영화가 단순한 감동의 전달을 넘어 국가 질서에 대한 정서적 동일화를 추구한다고 분석한다.[6] 다른 연구는 이 영화를 재난영화의 계보 속에서 해석하며, 애국담론이 영웅화와 감동 서사를 통해 체제 정당성을 강화한다고 본다.[7]

전통적 재난영화는 위기 순간을 '안전과 시스템의 붕괴'로 시각화하며, 공포·혼란·패닉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전면에 배치한다. 그러나 〈중국기장〉은 이러한 관습에서 벗어나, 재난을 안전이 붕괴되는 파국적 순간으로 전시하기보다, 이미 구축된 절차와 규범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장면으로 구성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중국기장〉에서 조종실의 대처, 승무원의 안내, 관제센터의 판단, 지상 조직의 대응은

6) 이보람, 〈신시대 중국 헌정영화(獻禮片) 연구: 2019년 건국 기념 헌정영화의 감정 정치와 기억의 윤리〉, ≪아시아영화연구≫ 18권 2호, 2025, 177-216쪽.

7) 박민수, 〈중국 재난영화의 애국담론 연구-류웨이창(刘伟强) 영화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82집, 2023, 389-405쪽.

www.kci.go.kr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안전'이라는 국가적 가치가 현실의 절차와 직업윤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드러내는 핵심 장면들이다. 위기는 영웅적 결단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과 표준 절차, 조직적 협업이 실제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과정으로 제시되며, 이는 곧 국가가 설계한 안전 체계가 위기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감각, 즉 신심(信心)으로 연결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서사가 관객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재난이 제도적 신뢰를 조직하는 영화적·담론적 조건을 해명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Ⅱ. 예측 가능한 재난의 형상화

전통적인 재난영화는 돌발적 사건이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중심에 둔다. 재난은 예측 불가능한 충격으로 제시되며, 인물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생존을 시도한다.[8] 많은 재난영화가 파괴적 스펙터클, 고난과 극복의 패턴, 영웅적 지도자상이나 가족 공동체 서사를 결합해 체제 유지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해 왔다.[9]

그러나 〈중국기장〉은 이러한 장르적 관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영화는 기상센터의 난기류 예보, 조종석 윈드실드 파손, 적란운 접근, 역추력(反推) 불능으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지만,[10] 위기를 공포의 정점으로 몰아가는 대신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즉, 위기는 감정의 폭발을 유발하는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의

8) 김대근, 〈한국 재난영화가 제시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징후적 독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8권제3호, 2024, 94쪽. 김대근은 재난을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이 일상화된 결과가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한다.

9) 이지행, 〈팬데믹 시대 한국 재난영화의 쟁점: 〈#살아있다〉, 〈반도〉, 〈사냥의 시간〉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5권 1호, 2022, 331쪽.

10) 趙亞男, 〈≪中國機長≫敘事特點分析〉, ≪戲劇之家≫ 第13期, 2022, 160쪽.

www.kci.go.kr

작동을 시험하는 장면으로 재현된다. 본 장은 기상센터-관제센터-조종·승무팀으로 이어지는 장면과 대사를 분석하여, 영화가 위험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1. 예고된 위험

영화는 새벽 4시 33분, 베이징 민항국 항공기상센터(中國民航局交通管理局航空氣象中心)의 화상 회의로 시작된다. 기상 담당자는 "칭장(青藏)고원 동남부의 대류운이 어제 예측보다 강해졌고 남서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항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3U8633편이 충칭(重慶)-라싸(拉薩) 구간을 통과하는 실제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한다. 위험은 막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미 시간·지점·항로 단위로 구체화된 정보로 제시된다.

장면은 곧바로 청두 관제센터로 전환된다. 관제 주임은 이 예보를 바탕으로 "해당 시간대 티베트 왕복 항공편을 면밀히 주시하고, 결항·지연 가능성에 대비하며, 교대 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다. 관제 요원은 "알겠습니다(收到)"라고 응답하며 지시 수령을 명확히 한다.

여기서 핵심은 위험의 내용이 아니라, 위험이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가에 있다. '기상센터의 분석-관제센터의 지시-지시 수령 확인'이라는 연속된 절차는 위험을 불확실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조정·관리할 수 있는 운항상의 변수로 전환한다.

초반부 시퀀스는 위험을 감정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짐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연출되지 않는다. 영화는 난기류 예보를 청각적·시각적 긴장 요소로 활용하기보다, 기상 분석이 관제 지시로 전환되고, 지시가 다시 현장으로 전달되는 행정적 절차에 집중한다. 화면은 위기의 '징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보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어떤 언어를 통해 처리되는지를 따라가며 위험을 감각적 불안이 아닌 업무 절차의 흐름으로 제시한다. 이 연출 방식은 위험을 불확실한 자연현상으로 재현하는 대신, '예측된 정보

www.kci.go.kr

가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과정'이라는 기조를 구축한다.

2. 훈련된 책임

비행 전 준비 장면은 비행팀이 위험을 어떻게 가정하고 대응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승무장 비난(畢男)은 복장, 손끝 상태, 시간을 차례로 점검하며 브리핑을 시작한다. 이어지는 문답은 위험을 추상적으로 상상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매뉴얼을 그대로 복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 비난: 오늘 항로는 충칭에서 라싸까지입니다. 이 노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번 승무원?
> 2번 승무원: 오늘은 고원 노선을 비행하며, 비행하는 공항의 해발 고도는 2,438미터 이상입니다.
> 비난: 객실 감압이 발생하면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 2번 승무원: 산소 마스크를 당겨 착용하고, 몸을 고정합니다.[11]

승무원들은 이 질문을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문장을 그대로 복기한다. 이 복기는 세 가지 효과를 낳는다. 첫째, 위험을 개인의 감정·판단과 무관하게 절차가 우선하는 영역으로 재배치한다. 둘째, 위험을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 훈련을 통해 이미 시뮬레이션된 상황으로 전환한다. 셋째, 승무원 각자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체계와 절차를 매개하는 수행적 주체로 위치시킨다.

이 구조는 비난이 "비상 상황에서 승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라

11) 비난: 今天的航程是從重慶到拉薩。這個航線有什麼特點，二號位？
2번 승무원: 我們今天飛行的是高高原航線，是因為運行機場的海拔高度大於2438米。
비난: 一旦發生客艙釋壓，我們第一動作需要做什麼？
2번 승무원: 拉下氧氣口罩吸氧，同時固定好自己。

www.kci.go.kr

고 묻는 장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승무원 전원이 망설임 없이 공식 비상 문구를 복창한다.

> 승무원 일동: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자신과 능력이 있습니다.[12]

이 문구는 승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반드시 말하도록 규정된 공식 문장이다. 승무원들이 이를 집단적으로 복기하는 행위는, 이 문장을 개인의 감정이나 태도와 분리된 직무 수행의 언어로 굳힌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은 위로의 표현이 아니라 위기 대응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한다. 이 순간 승무원들은 정해진 규범을 수행하는 역할 주체로 위치 지워지고, 승객 역시 개인적 불안의 영역이 아니라 절차가 작동하는 질서 속으로 편입된다. 이때 영화가 제시하는 '안전'은 심리적 안도감이 아니라, 훈련과 규정, 책임의 수행이 중단 없이 이어진다는 구조적 안정성에 가깝다.

조종실 브리핑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장 류창젠(劉長健)은 객실 산소 사용 시간, 감압 절차, 비상 시 고도 조정 등 규정된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고, 부기장 쉬이천(徐奕辰)은 "정상입니다", "알겠습니다(收到)"라고 응답한다. 반복되는 보고 언어는 조종실 역시 영웅적 결단의 공간이 아니라 매뉴얼이 작동하는 기술적 공간임을 분명히 한다.

기장은 이후 태블릿으로 기상 정보를 재확인하며 "구름이 크다. 갈 때는 고도를 올려 앞부분을 피해서 가자"라고 말한다. 기상센터의 분석과 현장 경험이 결합되면서 위험은 다시 시간-항로-전략의 차원에서 조정 가능한 변수로 재정의된다.

이 시퀀스 전체는 비상 점검이 형식적 의무가 아니라, 이미 훈련된 절차와 규범이 실제 상황에서 호출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비행 전 점검이 위험을 미리 분류하고 절차를 소환하는 단계라면, 이후 전개될 위기 상황

12) "請相信我們, 我們受過專門的訓練。有信心有能力保證你的安全。"

www.kci.go.kr

은 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국면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관점은 고도 9,800미터에서 윈드실드 파손이 발생한 이후 전개되는 모든 장면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Ⅲ. '안전'의 재구성

〈중국기장〉은 재난을 거대한 스펙터클로 재현하기보다,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 각 부문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돌발적 위험은 시스템 전반의 작동을 시험하는 순간이 되고, '안전'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와 책임이 이어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1.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시스템의 작동

난기류를 통과한 직후 조종실은 잠시 안정을 되찾는 듯 보이지만, 영화는 이 순간을 휴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부기장이 "이 항로를 여러 번 비행하셨다"고 말하자, 기장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 시절까지 합치면 이미 백 번 넘게 비행했다고 답한다. 이어 민항기 조종사로 이직한 뒤 적응이 쉽지 않았던 시간을 회상하며, 당시 교관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전한다.

> 기장: 그 교관이 나를 호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지. "내가 지금 너를 혼내는 건 나 때문이 아니야. 내 가족이 언젠가 네가 모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기 때문이지. 나는 그때 불안해하고 싶지 않아." (…) 좋은 기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실수가 찾아오기 때문이지. 그래서 조종석에서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세심해야만 해.[13]

13) "那個教員真罵我, 罵完我跟我說 : "說我今天大罵你, 不代表我, 代表我的家

www.kci.go.kr

이 말은 개인적 경험담을 넘어, 민항 여객기 기장이 기억해야 할 직업 윤리의 핵심을 드러낸다. 영화는 이 대화를 통해 조종사의 직무 수행이 전문적 기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생명을 맡는다'는 윤리적 책임이 안전의 기반임을 강조한다.

곧이어 07시 07분, 고도 9,800미터에서 조종석 우측 윈드실드에 돌연 균열이 생기며 예고되지 않은 위기가 시작된다. 윈드실드 일부가 파손되고 급격한 감압과 영하 수십 도의 강풍이 조종석 내부로 밀려든다. 부기장의 몸은 압력 차에 떠밀려 창밖으로 반쯤 이탈하고, 조종실은 자세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혼란 상태에 놓인다. 그러나 기장은 즉시 관제센터에 하강을 요청한 뒤 조종간을 붙잡고 자세를 유지하며 기체를 통제한다. 폭발음을 들은 릴리프 기장 량둥(樑棟)은 곧바로 조종석으로 복귀해 부기장에게 안전벨트를 다시 매주고 산소마스크를 씌운 뒤, 기장에게도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킨다. 이어 객실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짧게 보고한다. 기장은 보고를 확인한 뒤 항공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부기장에게 수신호로 트랜스폰더에 코드 7700(국제 표준 비상 신호)을 입력하라고 지시한다. 이 일련의 조치는 극한 상황에서도 조종실이 사전에 규정된 절차를 차분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응은 직감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위기 상황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여기서 코드 7700 입력은 조종실 내부의 통상적 절차를 넘어, 돌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 전체의 비상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시키는 신호다. 관제센터(成都區域管制中心)는 즉시 비상 대응 절차를 가동하고, 항로 재조정과 활주로 정비, 소방·구급·의료·보안 인력을 포함한 전면적 대응을 준비한다. 청두솽류공항 관제탑(成都雙流機場塔臺管制室)과 터미널 관제실(成都終端管制室), 공군 항공관리부(空軍參謀部航管部)로 이어지는 연쇄적

人。因爲將來他們很有可能做你開的飛機，我不想因爲那個飛行員是你而擔心。”(…)想當一個好機長，這點還不夠。一定要牢記，當你認爲沒有錯誤的時候，錯就一定會來找你。在駕駛艙裏，所有動作都要準確、細緻。”

www.kci.go.kr

반응은, 단일한 7700 전송이 각 기관의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렬하며 지상 전체의 비상 대응 체계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신호임을 분명히 한다.

객실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산소마스크가 떨어지고 승객들이 공포에 휩싸이지만, 승무원들의 언어는 감정을 달래는 위로나 추측이 아니라 규정된 절차에 따른 안내로만 구성된다. "산소마스크를 당겨 착용해 주세요",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등의 지시는 매뉴얼에 정해진 문구 그대로다. 특히 승무장 비난은 "우리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훈련을 반복했다"고 말하며, 지금의 혼란을 이미 대비된 절차의 범주 안으로 다시 묶는다. 이 언어는 공포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기내 질서를 정돈해, 이후 비상 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기체가 적란운과 산맥을 동시에 마주하는 순간이다. 관제센터는 "기장은 구름이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機長在等雲體分裂)"고 설명하며,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타이밍을 기장이 판단하고 있음을 전한다. 적란운 내부는 고도와 바람의 방향, 기류가 뒤엉켜 있어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면 기체가 통제 불능에 빠질 위험이 크다. 상단을 넘어가려 해도 주변 지형과 고도 차이가 커 우회 비행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다. 결국 기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구름이 잠시 열리는 지점을 기다렸다가 그 틈을 이용해 빠져나오는 방법뿐이며, 그는 기류가 잠시 안정되는 순간을 포착해 조종간을 조정한다.

이때 기장은 "나는 119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지상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발언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지를 분명히 한다. 즉 위험도의 증감이나 개인의 감정에 앞서, 모든 결정의 기준을 승객의 생명 보호에 두겠다는 직무 원칙을 확인하는 말이다.[14] 착륙 이후 기장이 언급하는 '생명·규정·직책에 대한 경외(敬畏生命、敬畏職責、敬畏規章)' 역시 이러한 판단 구조를 정리하는 언어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을

14) 실제 탑승자는 승객 119명과 조종사 3명·승무원 6명을 합한 128명이었다. 영화가 총원 대신 승객 수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승무원'보다 보호받아야 할 '승객'을 전면에 세워, 직무윤리를 자기희생의 태도로 보이게 한다.

www.kci.go.kr

과시하기보다, 위기 대응이 특정 인물의 결단이 아니라 사전에 정립된 기준과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제도적 어휘로 재확인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기장〉의 위기 서사는 재난 극복의 주체를 특정 인물의 결단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기장·부기장·릴리프 기장·승무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기준과 절차를 정확한 순서로 수행하며, 이러한 수행이 누적될 때 비행은 다시 통제 가능한 상태로 복원된다. 영화가 제시하는 '안전'은 특정 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조종실·객실·관제센터가 각자의 역할을 끝까지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요컨대 안전은 규범과 절차, 부문 간 협업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되며, 위기는 이러한 연쇄가 유지되는 한 관리 가능한 국면으로 전환된다.

2. 책임지는 주체와 '세 가지 경외(三個敬畏)'

쓰촨항공 3U8633편 사건은 "기적의 불시착(迫降奇蹟)", "역대급 쾌거(史詩級壯舉)", "영웅 비행팀(英雄機組)" 같은 극적인 수사로 소개되었다.[15] 중국 언론은 침착한 대응과 조종 기술로 여객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킨 기장을 '중국의 설리 기장'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보도는 비행팀의 대응이 어떤 규정과 절차, 체계화된 직무적 책임 위에서 가능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적'의 서사로 소비하게 만들었다.

이후 2018년 6월, 쓰촨성 정부와 민항국은 비행팀을 '중국 민항 영웅 비행팀(中國民航英雄機組)'으로 공식 명명하고, 이들의 대응을 민항 종사자들이 참고해야 할 직무 수행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건을 개인의

15) 〈萬米高空如何完成生死迫降？聽川航英雄機組講述〉, ≪新華網≫, 2018.05.20.,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5/20/c_1122858127.htm [검색일: 2025.11.03.]; 葉子, 〈點贊英雄機組 關注事故原因〉, ≪人民網－人民日報海外版≫, 2018.05.20., http://society.people.com.cn/n1/2018/0518/c1008-29997640.html [검색일: 2025.11.03.]

www.kci.go.kr

영웅담으로 남기기보다, 민항 안전 체계가 실제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배치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재해석은 2018년 9월 시진핑이 비행팀을 접견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위기 대응의 핵심을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의 준수와 평소 축적된 훈련에서 찾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5월 14일에 발생한 사고의 성공적인 처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내린 모든 판단과 행동이 정해진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드러난 침착함과 용기는 평소의 책임감과 엄정한 근무 태도, 그리고 직무 역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16]

이 발언은 3U8633편 사건의 의미를 개인의 기량이나 임기응변의 결과로 환원하지 않고, 절차와 책임, 반복된 훈련이 결합된 제도적 수행의 성과로 이해하도록 재조정한다. 무사 착륙은 한 개인의 뛰어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체화된 규정과 훈련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영웅성은 예외적인 순간의 용기에서, 규정을 지키는 일상적 직무 수행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재조정 위에서 시진핑의 평가는 단순한 치하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위대함은 평범함에서 나오고, 영웅은 인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하며, 영웅성을 초월적 능력이나 비상한 결단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는 태도로 설명한다. 이는 비행팀의 대응을 개인적 용기의 결과로 환원하기보다, 규정과 책임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16) "5·14事件成功處置絕非偶然。處置險情時, 你們所做的每一個判斷、每一個決定、每一個動作都是正確的, 都是嚴格按照程序操作的。危急關頭表現出來的沉着冷靜和勇敢精神, 來自你們平時養成的強烈責任意識、嚴謹工作作風、精湛專業技能。"(〈習近平會見四川航空"中國民航英雄機組"全體成員〉, ≪新華網≫, 2018.09.30.,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9/30/c_1123511393.htm [검색일: 2025.09.15.])

www.kci.go.kr

이 같은 해석은 이후 제도적 규범으로 구체화되었다. 민항국은 '세 가지 경외(敬畏生命、敬畏規章、敬畏職責)'를 민항 안전의 핵심 원칙으로 공식화하고, 이를 모든 업무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2020년 4월 발표된 〈'세 가지 경외' 선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에 관한 통지〉는 생명·규정·직책을 경외하는 태도를 일상의 직무 판단 속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것을 요구한다.[17] 이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제도적 교육과 규범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외'의 논리는 2016년 시진핑이 제시한 "인민·조직·기율 및 법률에 대한 경외(敬畏人民、敬畏組織、敬畏法紀)"와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다.[18] 여기서 '경외'는 감정적 존경을 뜻하기보다, 개인의 판단을 제도적 기준에 앞서 두도록 요구하는 통치 원리에 가깝다. 민항국의 '세 가지 경외' 역시 이를 직업윤리의 언어로 전환한 것으로, 종사자들이 생명·규정·직책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경외'는 항공 업무 전 과정에서 승객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규정에 대한 경외'는 사고 조사와 운항 경험의 축적 속에서 형성된 절차를 개인의 판단보다 우선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킨다. '직책에 대한 경외'는 조건의 변화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직무 윤리를 의미한다. 세 가지 경외는 선언적 구호라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실무적 기준으로 기능한다.[19]

17) 〈民航局下發通知要求全行業切實做好"三個敬畏"宣傳教育工作〉, ≪中國民航局≫, 2020.04.18., https://www.caac.gov.cn/ZTZL/RDZT/202004ZQSGJW/LDJH/202004/t20200426_202248.html [검색일: 2025.09.25]

18) 張堯, 〈牢記"三個敬畏" 不忘安全初心〉, ≪中國民用航空中南地區管理局≫, 2020.07.08., https://www.caac.gov.cn/big5/www.caac.gov.cn/local/ZNGLJ/JX930BYZSB/202007/t20200708_203483.html [검색일: 2025.09.25]

19) 張堯, 〈牢記"三個敬畏" 不忘安全初心〉과 中國民航報評論員, 〈開展學習教育, 強化"三個敬畏"的內在約束——二論以"三個敬畏"爲內核深入推進作風建設〉, ≪中國民航局≫, 2020.05.06., https://www.caac.gov.cn/ZTZL/RDZT/202004ZQSGJW/PL/202005/t20200506_202390.html [검색일: 2025.09.25.] 참조.

www.kci.go.kr

이 규범은 3U8633편 실화와 영화 〈중국기장〉이 제시한 직무 수행의 표준을 계기로 더욱 분명해졌다. 민항국은 사건과 영화에서 확인된 수행 방식을 '세 가지 경외' 교육의 근거로 활용하며, 실화–규범–영화가 서로를 보완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규범은 단순한 지침을 넘어, 실제 현장의 판단과 행동을 조직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20]

비행팀의 회고 역시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보여준다. 기장 류촨젠은 "기장은 만분의 일의 위험에도 백 퍼센트의 노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직무 윤리에 기초한 실천으로 설명한다.[21] 승무원들 또한 평소의 훈련과 규정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22] 이 발언들은 국가가 제시한 규범이 추상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영화 〈중국기장〉의 결말에서 기장이 언급하는 '생명·규정·직책에 대한 경외'는 이러한 제도적 언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장면이다. 영화는 이 대사를 결말부에 배치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국가의 해석이 규범으로 정리되고, 현장에서 반복되며, 다시 영화적 재현을 통해 대중의 감각 속에 자리 잡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리하면, 3U8633편 사건은 신시대 중국이 강조하는 안전 담론과 책임 중심의 직무 윤리가 실제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해석되었고, 〈중국기장〉은 이러한 해석을 서사 구조 속에 통합한다.

20) 中國民航報評論員, 〈開展學習教育, 強化"三個敬畏"的內在約束——二論以"三個敬畏"爲內核深入推進作風建設〉 참고.

21) "作爲一名機長, 必須用百分之百的努力去對付萬分之一的隱患"(〈英雄機長劉傳建 : 以生命的名義捍衛最高職責〉, ≪搜狐≫, 2018.10.26., https://www.sohu.com/a/271497024_263678 [검색일: 2025.09.15.])

22) "我們心裏有底, 因爲相信我們的機長, 相信我們平時的訓練"(〈點贊英雄機組 關注事故原因〉, ≪新華網≫, 2018.05.18., http://www.xinhuanet.com/zgjx/2018-05/18/c_137188019.htm [검색일: 2025.09.15.])

www.kci.go.kr

3. 2019년, ‘안전’의 요청

2018~2019년은 중국에서 ‘안전’이 개별 산업이나 행정 분야의 관리 항목을 넘어, 국가 운영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로 강조되던 시기였다.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금융·고용 환경의 불안정, 잇따른 공공안전 사고, 장기화하는 홍콩 시위 등은 당국으로 하여금 사회 전반의 안정 유지와 위험 관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2014년부터 제시해 온 ‘총체적 국가안전관(總體國家安全觀)’은 다양한 영역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틀로 점차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핵심 원칙은 ‘인민 안전 중심(以人民安全爲宗旨)’으로 정식화되었다. 시진핑은 국가가 직면한 위험이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기술·생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단일 영역이 아닌 전 주기적 안전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인민 안전’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 운영의 지속성과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공공 영역의 직무와 제도는 점차 ‘위험을 어떻게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재정렬되었으며, 이는 “발전은 안전의 기반이고, 안전은 발전의 조건”이라는 시진핑의 언술과도 연결된다.[23] 특히 민항은 사전 인지, 절차적 대응, 부문 간 협력이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하는 고위험 산업으로서, 이러한 안전 통치 논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었다.

쓰촨항공 3U8633편 사건은 이러한 국가적 문제의식이 현실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조명되었다. 윈드실드 파손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종석·객실·관제 부문·지상 조직

23) “发展是安全的基础，安全是发展的条件”(〈習近平：堅持總體國家安全觀 走中國特色國家安全道路〉, ≪新華網≫, 2014.04.15., https://cpc.people.com.cn/n/2014/0415/c64094-24899781.html [검색일: 2025.10.21.])

www.kci.go.kr

이 정해진 보고-판단-조치의 절차를 유지했다는 점은, 위험 관리가 특정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 연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시진핑이 이 사건을 훈련과 규정, 책임 수행이 결합된 안전 관리의 사례로 언급한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안전은 민항 산업의 생명선"이라는 기조를 구체적 사건에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24]

2019년 국경절에 개봉한 〈나와 나의 조국(我和我的祖國)〉, 〈에베레스트(攀登者)〉, 〈중국기장〉은 서로 다른 소재를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국가 역량과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시각화한다. 이 가운데 〈중국기장〉은 영웅적 결단이나 극적인 희생보다는, '일상의 안전'이 유지되는 과정을 전면에 배치한다. 영화는 재난을 감정적 고조를 중심으로 한 기적의 순간으로 강조하기보다, 조종실·객실·관제 부문 간의 지속적인 교신, 매뉴얼에 따른 반복 점검, 단계별 대응 과정을 차분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안전이 특정 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이미 구축된 절차와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고 작동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서사 구성은 2019년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 속에서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기장〉은 3U8633편 사건을 개인의 용기나 감정의 고양에 초점을 둔 서사로 확장하기보다, 절차·책임·규범이 지속적으로 수행된 결과로 사건을 재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나 윤리적 고민은 상대적으로 절제되며, 서사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그 결과 영화가 제시하는 '안전'은 재난을 성찰의 계기로 남기기보다, 이미 요청된 국가적 질서와 관리 체계가 위기 속에서도 유효했음을 다시 확인하는 논리로 수렴된다. 이러한 서사적 완결성은 관객에게 안도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난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나 불확실성이 영화 내부에서 충분히 확장되지 않는 구조를 형성한다.

24) "安全是民航業的生命線, 任何時候任何環節都不能麻痹大意。"(〈習近平會見四川航空"中國民航英雄機組"全體成員〉, ≪新華網≫, 2018.09.30.)

www.kci.go.kr

Ⅳ. 결론: 통제되는 재난, 설계된 신뢰

〈중국기장〉에서 재난은 사건 자체의 비극성이나 긴박함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제시되지 않는다. 영화는 재난을 통제 불가능한 붕괴의 순간으로 재현하기보다,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가 구축해 온 안전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으로 배열한다. 조종실·객실·관제센터·지상 구조 조직을 교차 편집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위기 대응을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제도적 주체들이 분업적으로 수행하는 집합적 과정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 결과 재난은 비극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서사적 선택은 시진핑이 비행팀을 접견하며 사건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국가 담론과 밀접하게 맞물린다. 접견에서 시진핑은 비상착륙의 성공을 개인의 영웅적 결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축적된 책임 의식과 반복된 훈련의 결과로 설명했다. 이 공식 해석을 경유해 〈중국기장〉은 단순한 상업영화를 넘어, 국가가 승인한 의미 체계 안에서 읽히는 주선율 영화로 위치 지워진다. 따라서 위기 대응은 예외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일관되게 작동한 성과로 해석되도록 유도된다. 이 맥락에서 비행팀은 단일한 사고의 해결자가 아니라, 중국 민항 안전 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함을 보여주는 집단적 주체로 제시된다.

‘생명·규정·직책에 대한 경외’로 요약되는 원칙은 영화가 위기 대응을 윤리적 수행의 차원에서 조직하는 핵심 기준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민항이 국가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재인식되면서, 이 원칙은 개별 직업 규범을 넘어 국가적 책임 윤리로 강조되었다. 영화 말미에서 기장이 이 원칙을 직접 언급하는 장면은, 제도적 언어가 항공 종사자 개인의 판단 기준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개인의 기억이 국가적 기억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배치한다. 라싸행 항공기에 탑승한 한 퇴역 군인은 티베트 복무 시절 눈사태

www.kci.go.kr

로 전우를 잃은 경험을 회상하며, 이번 방문이 그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이 회상은 현재의 항공 재난과 직접적인 인과를 맺지 않지만,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호한다는 서사 속으로 포섭된다. 과거의 군사적 희생은 현재의 항공 안전과 병치되며, 국가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위험과 헌신을 하나의 보호 서사로 연결하는 주체로 형상화된다. 이 과정에서 영화 속 승객들은 단순한 구조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기억 체계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민'의 집합으로 재정의된다. 이때 안전은 사고 대응의 기술적 성공을 넘어,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호한다는 윤리적 약속의 형태로 확장된다.

이 퇴역 군인 서사는 앞서 살핀 제도와 윤리의 작동이 위기 대응의 절차적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희생을 국가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영화가 신뢰를 조직하는 방식은 절차의 재현을 넘어, 보호와 헌신의 의미를 국가가 서사적으로 배열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중국기장〉의 핵심은 실화에 부여된 국가적 의미가 영화적 형식을 통해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다. 사건, 국가 담론, 영화적 재현은 서로를 강화하며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이 구조 속에서 3U8633편 사건은 개인 영웅의 서사가 아니라 선진화된 국가 안전 체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능한다.

이러한 서사적 배열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서 가장 직접적인 언어로 정리된다. "119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이 무사히 착륙한 것은 세계 항공사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평가된다"는 자막은 사건을 개별 항공기의 위기 대응이 아니라 '세계적 기적'으로 재호명하며 중국 민항 시스템의 성취를 전면에 배치한다. 이어 제시되는 "중국 민항의 중대 사고율은 세계 평균의 11분의 1"이라는 통계 역시 감동의 근거를 개인의 용기보다 국가 시스템의 운영 능력과 안정성에 두도록 유도한다. 엔딩 크레딧은 영화 전체의 서사를 국가적 성취의 언어로 압축한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앞서 구축된 서사 구조는

www.kci.go.kr

재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보다, 질서와 안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따라 관객의 인식을 정렬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 결과 재난은 제도와 시스템이 안고 있는 불완전함을 점검하는 계기라기보다, 이미 마련된 안전 체계가 유효하게 작동했음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선택은 재난 이후의 판단을 다시 묻는 질문이 서사 내부에서 충분히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예컨대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Sully)〉(2016)이 사고 이후의 조사 과정과 설리 개인의 심리적 동요를 따라가며 '그 선택이 최선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과 달리, 〈중국기장〉에서는 기장의 판단이 서사적으로 재검토되거나 의심의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윤리적 갈등은 전면으로 부상하지 않으며, 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정리된다. 그 결과 재난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나 망설임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채 정리되고, '안전'은 성찰의 대상이기보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정치적 언어로 자리 잡는다.

결국 〈중국기장〉은 재난이라는 사건을 헌정영화의 질서 속에 위치시키며, 이를 신시대에 새롭게 요청되는 핵심 가치인 '안전'과 결부시킨다. 이때 국가에 대한 신뢰는 관객에게 미리 요구되는 감정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안전이 실제로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뒤에 도출되는 결과로 제시된다. 요컨대 이 영화가 조직하는 신뢰는 재난을 '안전'이라는 국가가 보장하고 관리해야 할 핵심 가치 아래 배치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뢰의 형성 방식을, 신시대 중국의 주선율 영화가 재난 서사를 통해 국가에 대한 믿음을 '안전의 확보'라는 결과 위에서 조직하는 메커니즘, 곧 '설계된 신뢰'로 규정하고자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대근, 〈한국 재난영화가 제시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징후적 독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8권 제3호, 2024.

박민수, 〈중국 재난영화의 애국담론 연구–류웨이챵(刘伟強) 영화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82집, 2023.

이보람, 〈신시대 중국 헌정영화(獻禮片) 연구–2019년 건국 기념 헌정영화의 감정 정치와 기억의 윤리〉, ≪아시아영화연구≫ 18권 2호, 2025.

이지행, 〈팬데믹 시대 한국 재난영화의 쟁점: 〈#살아있다〉, 〈반도〉, 〈사냥의 시간〉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5권 1호, 2022.

蔡東亮, 〈≪中國機長≫：新主流電影話語下的災難片演繹〉, ≪中國電影市場≫ 第11期, 2019.

陳旭光·張明浩, 〈電影工業美學視域下的≪中國機長≫：災難片的本土化與“新主流”的新拓展〉, ≪電影評介≫ 第1期, 2020.

範倍, 〈≪中國機長≫：實況再現與險情體驗〉, ≪電影藝術≫ 第6期, 2019.

潘國輝·張明浩, 〈電影工業美學視域下的作品呈現——以≪中國機長≫爲例〉, ≪齊魯藝苑≫ 第2期, 2021.

李從睿, 〈≪中國機長≫：社會核心價值觀與文化母題的現代書寫〉, ≪西部廣播電視≫ 第1期, 2022.

彭雨玥, 〈探析新主流電影的敘事策略及價值內涵——以電影≪中國機長≫≪中國醫生≫爲例〉, ≪戲劇之家≫ 第7期, 2023.

任夢琪·萬益傑, 〈≪中國機長≫：戲劇化的英雄敘事〉, ≪西部廣播電視≫ 第17期, 2021.

原文泰, 〈災難敘事與主旋律電影——從〈中國機長〉談起〉, ≪中國當代文學研究≫ 第3期, 2020.

張凡·宋園園, 〈硬漢精神與英雄敘事——電影≪中國機長≫的主題意蘊及啓示〉, ≪藝術評論≫ 第11期, 2019.

www.kci.go.kr

張新英·李欣蔚, 〈當災難遭遇≪中國機長≫——"在災難的注視中"之三〉, ≪博覽羣書≫ 第11期, 2021.

趙亞男, 〈≪中國機長≫敘事特點分析〉, ≪戲劇之家≫ 第13期, 2022.

趙豔君, 〈電影≪中國機長≫的時代內涵〉, ≪文化學刊≫ 第2期, 2021.

葉子, 〈點贊英雄機組 關注事故原因〉, ≪人民網－人民日報海外版≫, 2018.05.20., http://society.people.com.cn/n1/2018/0518/c1008-29997640.html [검색일: 2025.11.03.]

張堯, 〈牢記"三個敬畏" 不忘安全初心〉, ≪中國民用航空中南地區管理局≫, 2020.07.08., https://www.caac.gov.cn/big5/www.caac.gov.cn/local/ZNGLJ/JX930BYZSB/202007/t20200708_203483.html [검색일: 2025.09.25.]

中國民航報評論員, 〈開展學習教育, 強化"三個敬畏"的內在約束——二論以"三個敬畏"爲內核深入推進作風建設〉, ≪中國民航局≫, 2020.05.06., https://www.caac.gov.cn/ZTZL/RDZT/202004ZQSGJW/PL/202005/t20200506_202390.html [검색일: 2025.09.25.]

〈川航3U8633航班機組被授予"中國民航英雄機組"〉, ≪新華網≫, 2018.06.08.,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6/08/c_1122959081.htm [검색일: 2025.09.21.]

〈點贊英雄機組 關注事故原因〉, ≪新華網≫, 2018.05.18., http://www.xinhuanet.com/zgjx/2018-05/18/c_137188019.htm [검색일: 2025.09.15.]

〈華表獎歷史沿革〉, ≪中國電影局官網≫, 2019年9月5日., https://www.chinafilm.gov.cn/xwzx/ztzl/zgdyhbj/201909/t20190905_1316.html[검색일: 2025.09.03.]

〈民航局下發通知要求全行業切實做好"三個敬畏"宣傳教育工作〉, ≪中國民航局≫, 2020.04.18., https://www.caac.gov.cn/ZTZL/RDZT/202004ZQSGJW/LDJH/202004/t20200426_202248.html [검색일: 2025.09.25]

www.kci.go.kr

〈萬米高空如何完成生死迫降？聽川航英雄機組講述〉, ≪新華網≫, 2018.05.20.,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5/20/c_1122858127.htm [검색일: 2025.11.03.]

〈習近平：堅持總體國家安全觀 走中國特色國家安全道路〉, ≪新華網≫, 2014.04.15., https://cpc.people.com.cn/n/2014/0415/c64094-24899781.html [검색일: 2025.10.21.]

〈習近平會見四川航空"中國民航英雄機組"全體成員〉, ≪新華網≫, 2018.09.30.,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9/30/c_1123511393.htm [검색일: 2025.09.15.]

〈英雄機長劉傳建：以生命的名義捍衛最高職責〉, ≪搜狐≫, 2018.10.26., https://www.sohu.com/a/271497024_263678 [검색일: 2025.09.15.]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aptain*(2019) and asks how the 2018 Sichuan Airlines Flight 3U8633 incident is reconstructed as a paradigmatic case through which "safety" becomes a public value and a basis for institutional trust in China's New Era. Early media accounts framed the event as a miracle or an instance of individual heroism. State discourse, however, rapidly redefined it as evidence of institutional capacity grounded in procedures, standardized training,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his reframing was consolidated by 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which formalized the "Three Reverences(三個敬畏)"—reverence for life, regulations, and duty—as core principles of civil aviation safety. The film translates this interpretive shift into an embodied viewing experience through procedural sequencing, cross-cutting between cockpit, cabin, and air-traffic control, and sustained attention to routine expertise under

www.kci.go.kr

pressure.

The analysis proceeds in three parts. First, it shows how the film constructs disaster not as a sudden rupture but as a risk that is anticipated, classified, and made structurally intelligible through institutional information flows. Second, it argues that safety is represented as an outcome of procedural continuity: manual-based actions, distributed coordination, and professional discipline accumulate into stability. Third, it situates this aesthetic and narrative design within the heightened political emphasis on safety in 2019, when "risk prevention" and "stability maintenance" were foregrounded as governance priorities.

Ultimately, *The Captain* reframes the 3U8633 incident less as an emotional tale of extraordinary courage than as proof that a system can hold under real pressure. By foregrounding subjects who embody consistency in procedure, regulation, and duty, the film offers a model of professionalism aligned with the state's call for public trust in institutional order. This study argues that the "politics of safety" provides a productive lens for understanding contemporary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ese disaster cinema and opens broader questions about the cultural politics of security in the New Era.

Key Words : 중국기장(*The Captain*), 재난서사(Disaster Narrative), 안전(Safety),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 국가 신뢰(State Trust), 주선율 영화(Main Melody Film), 신시대(China's New Era)

www.kci.go.kr